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허 선사(1)

문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하되, 하고 싶은 일 뭐든 다 하게

예로부터 선사들의 한 마디 언행은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게 하는(直指人心 見性成佛)'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선문답은 옛 선사들이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언행(말, 고함치기, 풍동이질 등) 일 뿐만 아니라 그 언행 자체에 깊은 진리와 지혜가 응결되어 있어 말끝에 단박 깨달으면 언하(言下)에 대오(大悟)할 것이요, 깨닫지 못한다면 화두(話頭)가 되는 것이다.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연재를 통해 필자는 선문답이 수행과 동떨어진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니라, 좌선은 물론 생활 중에도 마음 공부와 한결같이 이어지는 일상선(日常禪)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망설임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이
지금 여기서 개인 삶 살라

도 된다는 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탈골만큼이라도 머뭇거리다가 후회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막행막식은 있을 수 없다. 고인들이 말했듯이, 선(善)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악(惡)을 행하겠는가. 매 순간 미래에 대한 망설임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니 선과 악을 조율해서 보살행을 베풀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금강경>의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

일찍이 임제 선사는 "바로 지금이지 다시 다른 시절이 없다(即時現今 更無時節)"고 일정한 바 없다. 도란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깨끗한 빛이기에, 진정한 도를 지어가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마음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念念心不間斷)'고도 했다. 영가 선사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다(不離當處常湛然)"고 진심(眞心)을 표현했다. 진심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보고 듣고 인식하는 작용에서 늘 지금 눈앞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2004년 입적한 송산 스님이 평소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밖에 없다. 아무것도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고 당부한 것도 경허 스님의 뜻을 오롯이 계승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때리고 맞는 곳에 法이 있다”

무비 스님 서울 미타사서 '임제록' 강좌...70여 중진스님 공부 열기



무비 스님

“임제록”에서 불법의 분명한 대의는 무엇인가?

“임제(臨濟義玄: ?-867)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세 번 묻고 세 번 맞는 것(三度發問 三度被打)이다.”

1월 30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대승암 대웅전에서는 팔삼한 날씨에도 법담 20년 이상의 비구, 비구니 스님 70여명이 조계종 전 교역원장 무비 스님의 <임제록> 강의를 숨죽이며 경청하고 있었다. 불교경전연구회(회장 지장)가 마련한 자리였다. 조계종의 제1교과이자 소의어록임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듣기 어려운 <임제록> 강좌가 모처럼 열린 탓인지, 법문을 설하고 듣는 모든 대중이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무비 스님은 “오래된 사찰의 비석에는 거의 임제의 몇 대 후손이라고 적혀 있으며, 다비석 때의 축원에 ‘빨리 이 땅에 돌아오시어 임제 문중에서 길이 인친의 안목이 되어주소서(臨濟門中 永作人天之眼目)’라는 축원이 들어갈 정도로 임제사상이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임제록> 강의는 1971년 서옹 스님의 봉암사 강의 이후 스님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드물 정도였다. 아마도 <임제록>을 강의하려면 서옹, 성철 스님과 같은 안목과 수행경지를 갖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이번 강의에서 무비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살림살이를 자신있게 드러내려는 의욕에 차 있었다. 스님은 본문에 앞서 ‘행록(行錄·행장)’을 강설하면서 임제 스님이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무비 스님의 '임제록' 강좌 첫 날 70여 중진스님이 강의를 경청했다.

“무엇이 불법의 분명한 대의입니까?”

이런 질문을 황벽 스님에게 던진 임제 스님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려 20방 망이를 두들겨 맞았다. 이어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지만, 똑같이 풍동이 날아왔다. 세 번 묻고 세 번 얻어맞는 동안, 무려 60방망이를 맞은 것이다. 그렇다만 ‘세 번 묻고 세 번 맞는 것’이 어떻게 불법의 대의란 말인가? 무비 스님은 이렇게 사족(蛇足)을 달았다.

“불법의 대의를 묻는 말에 무려 60방망이나 맞았으니, 불법치고는 ‘청전백일에 날벼락(白日青天霹靂)’임제 가풍을 상징한 말” 같은 기상천외의 불법에 대해 소신껏 보여주었다. 임제 스님의 문는 행위 자체가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지만, 황벽 스님은 더욱 강하게 때리는 행위를 통해 불법

의 대의를 드러낸 것이다. 불법의 대의란 때리고 맞는 그 사실이다. 즉 대기대용(大機大用)이며 전체작용(全體作用)이다.”

무비 스님은 임제 스님이 ‘세 번 묻고 세 번 맞는 것’은 부처님이 꽃을 든 것과 같고, 달마 대사가 9년 면벽한 것과 같으며,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세운 것과 같고, 임제 스님이 활을 하고, 덕산 스님이 방망이를 휘두른 것과 같다고 보았다. 물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임제 스님이 제창한 무위진인(無位真人: 차별없는 참사람)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대들 모두 석가와 다르지 않다. 석가도 볼 줄 알고 그대들도 볼 줄 안다. 석가도 들을 줄 알고 그대들도 들을 줄 안다. 육근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무위진인은 한 순간도 쉼 없이 있다. 이 사실을 알면 단지 ‘행생일 없는 사람(一生無事人)’일

뿐 달리 부처다 조사할 것이 없다.”

<임제록>의 알짜요 고갱이다. 임제선에서 ‘바로 목전에서 법을 듣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인 무위진인(無位真人, 불성은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작용(即今目前現用)’을 의미한다. 임제 선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이며, 이것을 깨달아야 경계의 장애로부터 해탈한다고 말한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보고 듣고 인식하는 작용에서 늘 지금 눈앞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매 순간 어디에서도 주인노릇하며 진실과 마주하는(隨處自主 立處皆眞)’ 것이다.

무비 스님은 “육근을 통해 보고 듣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이 작용이 신통과 묘용”이라면서 “이보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간단한 불교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는 구할 수 없고, 도는 이를 수 없고, 법은 얻을 것이 없다”는 임제 스님의 말을 믿지 못했다. 밖으로 부처와 깨달음을 구하는 갈망을 멈출 수 없기에 ‘지금 여기’에 온전히 함께 하는 불법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날 대승암에서는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스님이 중국에서 임제 종 18대 조사인 석옥정공 선사의 법을 이어받아 환암-구곡-벽계-벽속-부용-청허 스님 등을 거쳐 조계종으로 이어져 온 임제법맥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법석이었다. 무비 스님의 강좌는 매월 세째주 목요일 오후 2-5시 미타사에서 열린다. (문의: 011-420-7838, 지장 스님)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c6@hanmail.net

수행 게시판

<p>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한국의 위빠사나선원(http://cafe.daum.net/vipassanacenter)은 2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개설한다. 이종숙 수행자의 지도로 매주 월·수요일 오후 2시~5시 30분(총 28회) 수행하며, 이론 50분, 경행 30분, 좌선 60분, 명상 60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자율보시'는 받는다. (02)512-5258</p>	<p>임제록-선문엽송 강좌 부산 무심선원은 선어록의 원으로 불리는 <임제록>과 선종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엽송> 강좌를 열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12시 <임제록>, 수요일 저녁 7시 30분~8시 30분 <선문엽송>을 각각 강의한다. (051)515-7226</p>	<p>금강선원 참선수련원 동맹정진 다음카페 '하심(http://cafe.daum.net/humblemind)'은 2월 24~25일 강원도 홍천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에서 제 31차 철야용맹정진을 갖는다. 24일 오전 7시 20분 서울 남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 25일 오후 9시 서울 도착 예정. 수련원 인회비는 1박에 1만2천원. (010)5076-2359</p>
---	--	---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는 본지는 언제나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상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6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제, 천도제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평,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제·천도제·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지도

2학기 작법·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계작법, 도량계작법
바라춤 - 요점바라, 관용계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나바라

교수진

일초스님 직강 / 강사 : 원경스님·지오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작법부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07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 삼계종 <http://www.samgyeojong.org> / 한글인터넷 : 삼계종

